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10)

Λαός(Laos)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백성”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가 와 있는 나라도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동역자분들과 이곳의 소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3월 6일 이 땅의 수도인 비엔티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로부터 깜짝 환영을 받으며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착단계

앞으로 비엔티안에 거주할 집과 필요한 차량 구입을 위해 임시로 머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1월에 황야곱선교사가 이전 방문 때 치료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장로님 가정에서 기꺼이 방과 진료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달반 가량 이곳에 머무는 동안 언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고, 현지 문화와 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습득하며 적절한 가격의 거처와 차량도 구입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착 과정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어수업과 문화 날씨 적응



일년 중 가장 더운 3-5월은 100도가 넘는 습한 무더위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자마자 저와 아내는 언어학원에서 9주간 기초 첫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 리디아 선교사는 이 곳 외국어 대학에서 언어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독학과 현지인들과 만남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라오어는 5가지 성조가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와는 다른 형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지어를 떠듬떠듬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며 이 땅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국교가 불교인 국가로 민족성은 순박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삼륜차, 뚝뚝이, 버스, 승용차, 트럭 등이 뒤엉켜 다녀도 도심 제한 속도가 30마일로 매우 혼잡하여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 차나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있더라도 그 누구도 차의 클락션도 누르지 않고 그 차가 비켜주기를 조용히 기다릴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클락션을 누르는 차가 있다면 분명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는 일이 잘 되어도 안되어도 사용하는 “버뻐냥(괜찮아)” 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가 오히려 시간개념을 없고 약속도 늦고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편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의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몬순기후 입니다. 11월에서 2월은 건기로 날씨가 제일 좋은 때이고, 3월-

6월 초까지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6월에서 10월까지의 우기입니다. 지금은 95도가 넘는 무더위와 함께 비가 하루에 몇 번이고 내리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메콩강이 넘쳐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배우며 저희 부부도 이곳에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해도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치료사역

항아곱 선교사는 이 곳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 주에 2회 하루에 10여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이 양육하는 현지인들을 무료 진료 하였습니다. 이 치료를 통해 육체적으로 고통가운데 있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손길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매주 토요일 수도에서 한시간 반 거리에 있는 나병환자촌에서 나병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25~27일에는 이 나라에서 열린 L국-태국-싱가폴 야구국가대표 친선경기에서 현지 팀닥터가 없는 관계로 임시로 팀닥터로 섬기면서 젊은이들을 섬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인 의사가 합법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 의사가 고가 나면 이곳에 2만불의 벌금 또는 이 나라에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우선 선교사님과 현지인 무료 치료는 치료센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나환자 촌은 그 지역 보건 담당자로부터 합법적인 무료 진료와 치료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잠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의대학도 없고 한의학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없어 외국인 한의사가 합법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진료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전통 마사지 센터 또는 자연힐링센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방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방법으로 한방치료 센터 오픈을 위해 장소를 찾고 있던 중, 지난주 적절한 가격에 좋은 장소를 주셔서 치료센터를 오픈하여 한방치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센터 등록과 허가를 받기 위해 지금부터 한달 반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7월 중순에는 치료센터를 오픈하여 합법적으로 사역자들과 현지인들을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료센터명은 히브리어로 "치유하다" 또는 "고치다"란 뜻의 "Rapha" 입니다. 치료센터를 통해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치료 그리고 특히 현지 젊은이들에게 침을 제외한 한방 치료 기술들을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받지만, 비용이 너무 적어 자립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치료 센터 오픈과 치료 사역을 위해 미국의 NGO단체인 FBB를 통해 1년간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땅밟기와 기도 사역

지난 4월 현지의 전통 축제 기간(물축제 새해)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북쪽 지역 정탐과 기도사역을 위해 이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방비엥과 루앙프라방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 초에는

Λαός(Laos) 하나님의 백성 기도편지 1(2025년 6월)

수도에서 3시간 정도 거리의 팍산이란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땅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저희 부부는 기회가 되는대로 이 땅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 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비자(Visa) 신청

이 곳의 여행비자는 30일이라 인근 국가로 3번에 비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장기 비자(1년)를 받기 위해 김 리디아선교사는 이 곳의 외국어대학에서 가을학기부터 한국어과 교수로 비자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황야 곱 선교사는 새로 오픈하는 치료센터를 통해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치료센터 등록과 허가가 완료되는대로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땅에 와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다 보니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선한 일을 통해 섬기는 삶으로 오늘도 전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올려주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가 이 땅에 열매 맺기를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 6월 무더운 L국에서

황야곱/ 김리디아드림

기도해 주세요...

1. 무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언어습득과 문화적응을 잘 하도록.
2. "Rapha" 치료센터 등록 및 허가서와 거주비자 및 취업비자가 문제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3. 나병환자촌의 합법적인 치료를 위한 지역 보건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들(재훈, 지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가운데 살아가고, 특별히 재훈이가 대학원(존스 홉킨스 SAIS)에 진학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대학원 학비와 필요한 것들의 공급하심을 위해.. 그리고 홀로 남게 될 지한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대학편입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5. L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돌아 오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고 L국 민족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부흥이 일어나도록

1,미국에서 후원: 송금시 **Memo(또는 Add a Message)란에 "Hwang Gyuin" 꼭 기입해 주세요.**

① 은행구좌정보 : Routing #: 122043602 / Account #: 07409881

② Venmo: ID: GP-USA Inc (GI) / Email: gpfinance@gpusa.org

③ Zelle: Mobile '657-538-7096' or E-mail 'gpfinance@gpusa.org'

*Add a Message란에 **"Hwang Gyuin"을 꼭 기입해 주세요**

④ Checks: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주소로/Pay to order:GP-USA

2.한국에서 후원하시는 방법

계좌번호 : 111-890163-81007 **예금주(황규인) / 은행명:KEB하나은행**